

[부산시민사회 국민의힘 방송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공영방송 정치독립에 여야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 발언문

요즘 언론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은 개별 기자, 한 언론사의 문제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언론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 닥친 총체적 난국은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행위의 결과, 그 총합이기에 더욱 답답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꾸고 되돌려야 할 언론 관련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언론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지금이라도 함께 하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영방송 3사는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그나마 공익적 가치를 내세운 뉴스와 콘텐츠 생산에 힘을 기울이는 방송사들입니다. 국가적 재난과 참사에 적극 대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은 ‘힘을 가진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대변하는 책무’를 가졌습니다. 그러하기에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언론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공영방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갑자기 낙하산 사장이 등장하고, 메인 뉴스 앵커가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교체되고, 경영진에 의해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고, 국민 대다수가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파우치 논란이라 축소해 말하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을 점검하려 했으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방송 불가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권력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KBS

에 이어 MBC도 같은 행보를 거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는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보는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무력화할 겁니다.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공공성을 걱정하는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해왔고, 가깝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21대 국회가 논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올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특히나 거부권 남발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는 컸습니다. 이를 반영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3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7월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정부와 정당 등 정치권에 독점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언론 현업 단체 등에 분산하고 이사 수를 지금보다 확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보자는 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여야 합의로 방송3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바랍니다. 어느 당이 발의하든 이미 논의가 진행되어온 법안인 만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게 토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야말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 세계 공영방송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발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은 ‘공영방송은 권력이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공공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국민의힘 부산시당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민의 많은 지지로 22대 총선에서 여러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위기에 내몰리자 가장 먼저 손을 보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지역방송이라는 것 잊지마십시오. 지금도 부산시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이 축소되고 무력화되면 지역언론 생태계가 다 같이 무너지고 결국 좋은 뉴스, 건강한 지역 공론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방송3법 개정 논의와 국회 통과에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엔 책임있게 나서라!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엔 동참하라!

방송3법 개정해 공영방송 공공성 지키자!